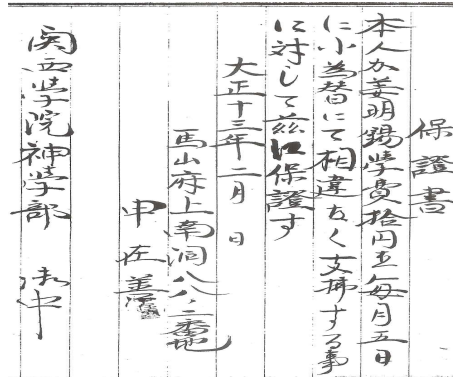


제5장 신학생 시절

강명석은 조선 미(남) 감리교회 『감리교회보』 편집 기자(編輯記者)로 전도국에 근무하면서부터 양주삼 목사로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강명석은 양주삼의 추천으로 1924년 4월 미국 남 감리교회 계통인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Kwansei Gakuin University] 신학부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게 된다. 이어 1925년 10월에는 조선 미(남) 감리교회의 전도인(傳道人)으로 임명을 받으므로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있었다. [「강명석 이력서」(간세이가쿠인대학 입학원서 첨부서류); 감리교회전도국(1982), 「남녀교역자이력서」, 『조선 남 감리교회 30년 기념보』(영인본), 242.] 강명석의 신학 공부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봉사 활동, 목회실습]을 통한 훈련을 병행하였고 이 실습에서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된다.

먼저는 ‘1924년 7월 15일(화)부터 8월 14일(목)’까지, 다음으로 ‘1926년 7월 15일(목)부터 8월 14일’(수)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산 나병원[癩病院, 한센인병원(Hansen 人病院)]에서 봉사 활동 즉 목회실습을 하면서 한센인들의 교회를 경험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강명석은 자신의 경험을 『기독신보』(1926.10.20.~1926.12.29.)에 「感

謝(감사), 告白(고백), 呼訴(호소)- 癲病者(나병자)를 爲(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제9회 연재하였다.



모친 신재선의 보증서, 간세이 가쿠인대학 입학원서 첨부

강명석이 연재한 글 속에는 부산 한센인병원 내에 있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인 감만리교회(戡蠻理教會) 혹은 상애원교회(相愛園教會)를 소개하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만리에 있는 상애원교회 예배당은 현재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기장군(機張郡) 정관읍(鼎冠邑) 용수공단2길 64-20(용수리)에 있으며, 2006년 창대교회(昌大教會, 예장통합)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한센인병원은 4개 지방에 있었다.

첫 번째는 전남(全南) 광주부(光州府) 광주군(光州郡) 부동방면(不動坊面) 양림리(楊林里)에 설립된 광주제중원[光州濟衆院, 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광주기

독병원]에서 1909년 4월 3일(토) 미국 남 장로교회 의
 료선교사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보의사(補醫師),
 1873.~1918.]가 길가에서 죽어가는 여자 한센인 치료를
 시작하므로 광주 한센인병원이 설립되었다. 이 병원은
 먼저 1911년 4월 25일(화) 전남(全南) 광주군(光州郡)
 효천면(孝泉面) 봉선리(鳳仙理)[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
 동]로 이전했다. 다음으로 1925년 조선총독부의 권유로
 여수군(麗水郡, 현 여수시(麗水市)) 읍촌면(栗村面) 신평
 리(新豐里)로 이전하면서 스스로 애양원으로 불렀다.
 이 병원은 1926년에 비더울프 한센인병원(Biederwolf
 Lepra hospital), 1935년 3월 15일(금)에는 애양원(愛養
 園), 1967년 8월 3일(목)에 재단법인 여수애양재활병원
 으로 개칭하였다. 이어 1988년 3월 21일(주)에 사회복지
 법인 애양병원으로 개칭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는 1910년 3월 30일(수) 미국 북 장로교회
 의료선교사인 어빈[Charles H. Irvin, 어을빈(漁乙彬), 1869.
 ~1933.]이 경남(慶南) 동래군(東萊郡) 서면(西面) 감만
 리(戡蠻理)[현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부산 한센인병
 원을 설립하였다. 그 후 1912년 5월 호주 빅토리아 장
 로교회 의료선교사 맥켄지(Mackenzie)가 원장으로 취
 임하면서 상애원(相愛園)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940
 년 12월에 조선총독부의 한센인 격리치료정책에 의해
 소록도로 이주시킴으로 폐쇄(閉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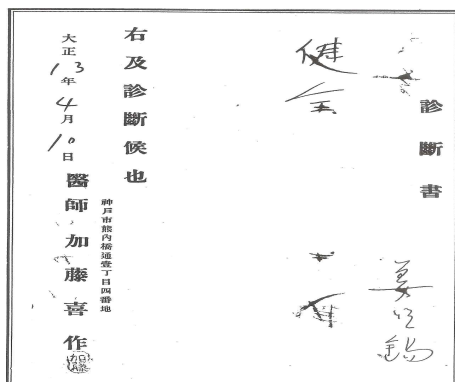
세 번째는 미국 북 장로교회 의료선교사 프렛처 [Archibald G. Fletcher, 별리추(鰲離秋), 1882.~1970.]가 1909년 6월 27일(주) 경북(慶北) 대구부(大邱府) 남성정(南城町)[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 대구 한센인병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15년 4월 6일(화) 경북(慶北) 달성군(達城郡) 달성면(達城面) 내당동(內唐洞) 12-37번지[현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30(내당동)]로 이전하였다. 이어 1924년 5월 7일(수)부터 대구애락원(大邱愛樂園)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네 번째는 1916년 2월 24일(목)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한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에 따라 설립된 전남(全南) 고흥군(高興郡) 소록도[小麓島, 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의 자혜의원(慈惠醫院)이다. 자혜의원은 1917년 5월 17일(목) 개원하여 전국의 한센인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켜 격리 치료를 시작하였다. 자혜의원은 해방 후인 1945년 5월 중앙나요양소(中央癩療養所), 1957년 12월 소록도갱생원(小麓島更生院), 1960년 7월 1일(금) 국립나병원(國立癩病院)으로 개편되었다가 1982년 12월 31일(금) 국립소록도병원(國立小麓島病院)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명석은 1926년 당시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한센인병원들과 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한센인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널

리 퍼져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한센인들에 대한 통계를 『기독신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 한센인병원이 부산[경남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구[경북 달성군 달성면 내당동]에도 있고, 광주[전남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도 있고, 소록도[전남 고흥군 금산면]에도 있다. 나는 지금 이 4곳에 있는 한센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어느 때 본 통계에 의하면 부산 400여 명, 대구 400여 명, 광주 600여 명, 소록도 200여 명, 총 1,600여 명이 되는듯하다.” [강명석(1926.10.20.), 「感謝, 告白, 呼訴-癩病者 爲하여(1)」, 『기독신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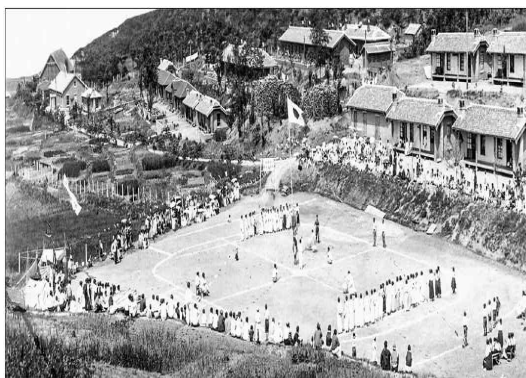
건강진단서, 간세이 가쿠인대학 입학원서 첨부

“이제 우리나라 한센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

하려고 합니다. 광주 한센인병원에 있는 엉거[James K. Unger, 원가리(元佳理), 1883.~1965. 남 장로교회 순천 선교 부 소속] 의사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동서양 각국에 흩어져있는 한센인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우리 동족인 한센인들의 숫자는 2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곳의 병원에 수용된 자는 2천 명 이내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1만 8천 명은 아무 치료(治療)도 받지 않고 결식(乞食)을 합니다.” [강명석(1926.12.22.),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8)」, 『기독신보』, 4.]

강명석은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 때인 1924년 7월 15일(화)부터 8월 14일(목)까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부산 한센인병원인 상애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다. 그 후 한센인들과 함께했던 일들이 떠올라 늘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름방학 때만 되면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부담감(負擔感)으로 인해 고민하였다. 그러다 1926년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갈까 말까 갈등(葛藤)하다가, 결국은 가서 봉사 활동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6월 30일(수) 병원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그의 마음이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나는 요즈음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될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는 숙제였다. 자나 깨나 그 숙제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부산 한센인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으므로 해결하였다. 그래서 즉시 병원관리자에게 ‘7월 15일(목)부터 8월 14일(수)까지 한 달 동안만 병원에서 봉사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썼다. 나는 병원 측의 도움을 받거나 폐(弊)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꼭 허락해 줄 것을 믿는다.” [강명석,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1)」, 5.]



부산 상애원(1939.), 부산남구신문(2017.6. 2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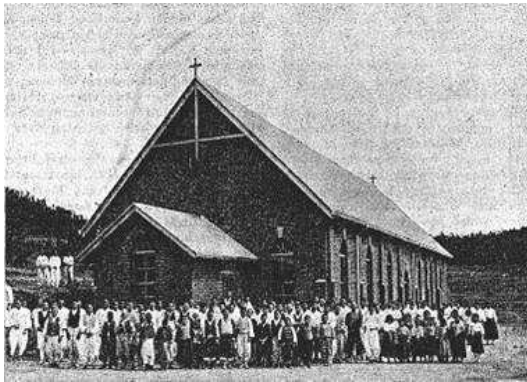
그렇지만 강명석은 어려서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가 몸이 약한 것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은 과로하면 쓰러질 수 있고, 혹시 한센병에 전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산 상애원에 가는 것을 한 사람도 찬성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지 말라고 극구(極口) 반대했었다. 그래도 그는 소외당한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서를 상고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갔다. [강명석(1926.11.03.),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2)」 『기독신보』, 4.]

그렇다면 강명석은 부산 한센인병원인 상애원에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였을까? 그는 먼저 남자반과 여자반, 20세 이하의 남녀 혼합반 등 모두 3개 반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매일 오전에 각반마다 1시간은 성서를 가르쳤고, 3시간은 자율학습(自律學習)을 하게 한 후 개인 지도를 하였다.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씩 남자반과 여자반, 그리고 유년 반이 함께 모인 합반으로 1시간은 찬송가를 가르쳤고, 1시간은 전도훈련을 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말씀을 강론한 횟수는 24회였고, 공부를 가르친 시간은 62시간이나 되었다. [강명석,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2)」, 4.]

강명석은 3주간 동안 한센인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들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시간마다 출석한 것으로

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끄끙 참아가면서 출석하였고,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친구의 등에 업혀서 출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센인들의 열성에 감탄(感歎)한 그는 “이것만 보아도 여기 있는 한센인들이 성서를 상고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강명석,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2)」, 4.]



감만리(상애원)교회, 손양원 목사의 생애와 사상

강명석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한센인들의 신앙공동체인 감만리교회(상애원교회)에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를 닮은 모습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큰 교회’라고 했다. 왜냐하면, 세례교인이 120여 명이고, 주일 낮 예배와 주일 밤 예배에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둘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했다. 그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오전 5시, 8시, 오후 3시 30분, 8시에 공동예배를 드렸다. 셋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했다. 매일 공동기도회 4회, 방 기도회 2회가 있었고, 시간 나는 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갔고, 금식기도까지 할 정도였다. [강명석(1926.11.24.),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4)」, 『기독신보』, 5.] 넷째, ‘개척에 힘쓰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다. 전도회를 조직하여 매월 23전 혹은 56전씩 모아 230원의 자본금으로 경남(慶南) 밀양군(密陽郡) 산외면(山外面) 송백리(松栢里)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경남 밀양군 상남면(上南面) 수산리(壽山里)에 선교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손양원[孫良源, 1902.~1950.] 전도사(후일 목사)를 파송할 정도였다. 다섯째, 수산리교회(壽山里教會)가 부흥하여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소식에 50원이라는 큰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나눔을 실천하는 주는 교회’라고 했다. [강명석(1926.12.01.),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5)」, 『기독신보』, 5.]

강명석은 한센인들의 신앙공동체인 감만리교회(상애원교회)가 위와 같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교회개척과 선교에 힘쓰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목격(目擊)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을 닮자고 호소하였다.

“맨주먹만 가진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종신병(終身病)을 가지고 신음(呻吟)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러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어찌 놀라 깊이 감탄(感歎)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痼疾病)으로 고생하는 불쌍한 처지에서 남의 도움으로 살면서도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일 예배당을 위하여, 없는 가운데서도 매월 그리고 수시로 많은 돈을 모아서 보내 줍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책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강명석, 「感謝, 告白, 呼訴- 癩病者 爲하여(5)」, 5.]



강명석의 모교인 간세이 가쿠인대학 캠퍼스, 홈페이지